

## 홍보 자료

광문각출판사 & 북스타 & 사이언스주니어 :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161 파주출판문화도시  
TEL(代) : 031-955-8787 | FAX : 031-955-3730 | E-mail : kwangmk7@hanmail.net

### ◆ 제목 : [성령으로 들여다본 신통섭의 솔루션] 하나님과의 대화

| 김병윤 지음 | 신국판(152x225 mm), 480쪽, 컬러 인쇄, 양장제본 | 28,000원 | 광문각|

## WHAT IS LIFE AND AFTER-LIFE? 경전을 읽지 않는 종교인들이여 자성하여라

### ◆ 도서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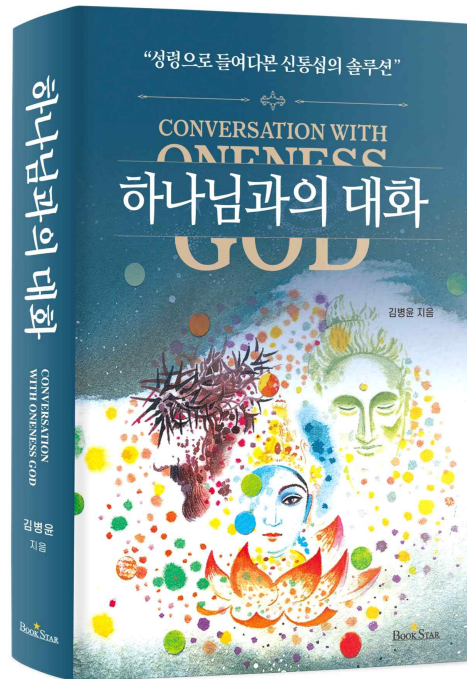
40년의 탐구 끝에 완성된 《하나과의 대화》

과학과 종교의 경계를 허물며 존재의 본질을 묻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삶과 죽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근원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40여 년 동안 사유와 탐구를 멈추지 않았던 저자 신통섭이 마침내 자신의 철학적 여정을 집대성한 《하나과의 대화》를 출간했다.

이 책은 단순한 종교서가 아니다. 종교·철학·자연과학을 아우르며 ‘존재의 본질’과 ‘신의 의미’를 통섭(統攝, Consilience)의 관점에서 해석한 인류적 사유의 기록이다. 저자는 어린 시절 증조부모의 죽음을 통해 느낀 공포에서 출발하여, 삶과 죽음의 경계 너머에 존재하는 실체에 대한 의문을 평생의 과제로 삼았다.



### ■ 철학과 과학을 넘나든 40년의 여정

대학 시절 그는 유네스코학생회(KUSA)에서 활동하며 ‘모든 존재는 육체·정신·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장을 적은 경험을 계기로 평생의 화두를 품게 되었다. 이후 종교 경전과 철학서, 그리고 과학 서적을 넘나들며 진리를 탐구했다. 연세대 철학과 선배 고(故) 김정호와의 토론, 동문 윤방섭 부총장의 도움으로 원주에서 강의하며 과학 도서를 탐독한 시간들은 그의 사유를 한층 심화시켰다.

그의 사색은 종교적 신념을 넘어 과학적 탐구로 확장됐다. 2010년 출간한 『영(靈)과 영(零)』에서는 “모든 존재가 하나”라는 깨달음을 담았고, 스티븐 호킹의 『위대한 설계』를 읽으며 자연법칙 속에서 신의 흔적을 발견했다. “모든 물질은 그에 대응하는 반물질과 만나면 ‘영

(零)’으로 돌아간다”는 구절은 그에게 존재의 본질이 영원한 ‘영(靈)’임을 확신하게 한 결정적 계기였다.

2016년에는 영어로 집필한 『무유(Nosome)』 원고를 완성했고, 이번 《하나과의 대화》를 통해 40년에 걸친 사유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 ■ 네 인물의 대화로 풀어낸 ‘신’과 ‘진리’

책은 네 명의 상징적 인물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레스킴은 저자의 분신이자 합리적 관찰자,

라바모스는 『탈무드』에서 영감을 받은 종교인,

아인스호키는 아인슈타인과 스티븐 호킹의 합성체로 과학적 이성을 상징하고,

바우류당은 변질된 신앙을 대변하는 신부로 등장한다.

이 네 인물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저자는 종교의 기원과 한계, 인간 존재의 본질,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탐구한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된다.

1장은 구약성경의 신화성과 모순,

2장은 예수의 개혁 정신과 그 좌절, 바울의 왜곡된 교리,

3장은 사후세계의 허구와 ‘이승에서의 천국’,

4장은 깨달음과 신성을 자연법칙과 연계한 논의로 이어진다.

이처럼 저자는 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철저히 건설적인 문제의식으로 접근한다.

## ■ “모든 존재는 평등하며, 신은 우리 안에 있다”

《하나과의 대화》의 중심 주제는 ‘존재의 평등’이다. 저자는 “인간만이 우월하다는 생각, 그리고 특정 종교나 민족만이 신의 선택을 받았다는 믿음이야말로 인류의 불행을 초래했다”고 단언한다. 그는 종교의 권력화와 교리의 왜곡이 인류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했다고 지적하며,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며, 저승이 아닌 이승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한 “성령은 성직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내재된 보편적 에너지이며, 부처와 예수는 이를 깨달은 자들”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종교는 신앙의 독점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진리를 향한 열린 탐구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 ■ 과학과 신앙의 통섭이 열어갈 새로운 종교 혁명

신통섭 저자는 “이 책이 내가 쓰는 종교 관련 마지막 책이 되길 바란다”며, “이제 종교는 기득권의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과 사랑의 원심력을 확장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AI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가 추구해온 ‘만물의 이론(Theory of Everything)’에 다가가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진리를 말해 왔으며, 머지않아 우리는 그 둘을 통합하는 ‘통섭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과의 대화》는 종교의 경계를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묻는 책이다. 저자가 40년에 걸쳐 쌓아온 철학과 과학의 대화는 독자에게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키며, “모든 존재는 하나이며, 사랑이야말로 우주의 근원”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 ◆ 차례 ◆

광문각출판사 & 북스타 & 사이언스주니어 :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161 파주출판문화도시  
TEL(代) : 031-955-8787 | FAX : 031-955-3730 | E-mail : kwangmk7@hanmail.net

성경을 읽지 않는 기독교인들이여!  
들어가는 글

### 제1장 구약성경의 가치와 모순

- 101 천지 창조
- 101-2 창조론 대 진화론
- 102 아브라함과 십일조
- 103 대홍수와 출애굽기
- 103-1 출애굽기
- 104 기록 오류
- 104-1 기록 오류 2부
- 105 윤리적 문제
- 105-1 윤리 문제 2부
- 106 역사적 고찰
- 106-1 철기시대
- 106-2 구약성경 기록 시점
- 107 구약성경의 효용
- 107-1 구약성경의 한계와 결론

### 제2장 신약성경의 의미와 한계

- 201 구약성경과의 관계
- 202 복음서 작성 시점
- 203 예수 생애 - 탄생
- 203-1 예수 탄생과 직업
- 203-2 동정녀 마리아
- 204 예수의 성매매 진실
- 204-1 성경의 기적
- 205 예수의 죽음
- 205-1 예수의 부활
- 205-2 막달라 마리아와 여성
- 205-3 부활 이후
- 206 바울과 예수

- 206-1 성서와 회당
- 206-2 베드로의 배신과 바울의 죽음
- 207 신약성경의 모순
- 207-1 복음서 차이와 역사적 왜곡

### 제3장 사후세계에 대한 오해

- 301 영혼
- 302 부활
- 302-1 부활 2부
- 303 윤회
- 303-1 원죄설과 대속설
- 304 파스칼 내기
- 305 사후세계 - 천당
- 305-1 천당(요한계시록)
- 305-2 지옥
- 305-3 연옥 외
- 306 천당의 주인
- 307 천당과 천국

### 제4장 신의 정의

- 401 여호와
- 402 종교의 본질
- 402-1 믿음
- 403 천사와 악마
- 404 삼위일체와 아세라
- 405 존재의 본질과 영(零)
- 405-1 존재의 본질
- 405-2 존재 관련 사례
- 406 모든 존재는 하나임
- 407 우리 모두가 하나님

### 끝맺는 말

### 부록

- 부록 1 구약성경과 관련된 열강의 왕 연대기
- 부록 2 에스라 족보
- 부록 3 이스라엘 12지파

부록 4 신약성경에 나온 예수 가계도

부록 5 예수 제자

부록 6 예수 행적

부록 7 신약성경 내 복음 종류

부록 8 구약성경의 지옥

부록 9 원자의 구조

부록 10 성경 속의 하나님

◆ 그 외 자 료 ◆

---

광문각출판사 & 북스타 & 사이언스주니어 :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161 파주출판문화도시  
TEL(代) : 031-955-8787 | FAX : 031-955-3730 | E-mail : kwangmk7@hanmail.net

■ 출판사 : 광문각출판사

■ 총 페이지수 : 480페이지

■ ISBN : 979-11-88768-49-3 03200

■ 인 쇄 : 2021년 12월 24일 1판 1쇄 인쇄

■ 발 행 : 2022년 1월 5일 1판 1쇄 발행

■ 가 격 : 28,000원

■ 판형 : 신국판(152×225)

■ 기타 : 컬러 인쇄, 양장 제본